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가인의 후손 성경: 창세기 4장 16-24절

Tag: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아엘을 낳고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창4:16-24)

성경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은 아담이 가인과 셋만 낳은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살 터울로 자녀를 낳았다면 400명이나 된다.(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그 많은 자녀

들 중에 셋을 낳고, 그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1-4)

가인의 후손이 일종의 세속 혈통이라면 셋의 혈통은 거룩한 혈통임을 짐작케 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사람’됨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사람만큼 양육이 중요한 존재는 없다. 양육에 따라서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데, 양육의 핵심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DNA, 언어, 가치관, 문화, 재산, 가업) 이다.

-그러므로 복이란 ‘부모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두 종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전도와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란 의미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복이 천대에 이르는 복이 된다.

-특히 3절에 아담은 셋을 낳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으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그 전에

낳은 아이들은?) 이는 그가 비로소 셋을 낳으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낳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셋을 낳게 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이 셋의 후손들과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짐작케 한다.

###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먼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인을 내어 쫓았다고 기억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고, 가인은 그런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

'여호와 앞'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의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복'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세상에 남겨지도록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4장 16절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만 그 이유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하나님은 가인을 지으실 때 매우 특별한 유전인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천재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천재성은 시기나 질투 같은 부정적 성품이 유발되는 스위치가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것이라 짐작된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재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에 죽이지 않고 남겨 두셨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복'을 주지 않으심으로 형벌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온 인류에게 그 DNA가 골고루 퍼져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인류가 분화되면서 가인의 DNA는 자연스럽게 온 인류 가운데 여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골치 아픈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것은 시기, 원망, 파멸, 원수 맺기, 속이기, 미움, 살인, 강도, 도둑질, 배신, 파렴치, 뻔뻔함, 교만함, 반항, 대적, 반역, 비아냥, 비난, 비판, 저주 등이다.

-그렇다면 셋의 후예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양육이 되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들인데, 겸손, 헌신, 선량한 마음, 사랑, 희생, 자비(성령의 열매), 경건, 회개, 사과하는 용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경외 등등이다.

-물론 이제는 이 두 종류의 DNA는 모든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섞여 있다. 이는 가인의 DNA 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재능과, 셋이 받았던 모든 종류의 복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유산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인의 후예들이 있다고 하고 셋의 후예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셋의 후예들은 재능은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재능은 뛰어나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인가? 전혀 유전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유치한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골고루 주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주어졌는데, 다만 그 가문의 문화, 친 부모의 양육의 질, 환경, 특히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뿐이다.(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과 노력이다.)

-즉, 유전 법칙에 의해서 특정 재능은 골고루 발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도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그 재능이 개발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할 것이며, 환경이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열이 갈리기도 할 것이며, 또 결단이나 선택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이나 복이 바뀌기도 할 것이다.

-즉, 똑같은 유전적 재능이 있어도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재능이 얼마나 훌륭하게 꽃피울 것인지는 각각 다르다.

-물론 분명하게 재능 때문에 더 교만하거나 가인스러울 수 있으나, 재능이 복을 받아서 요셉 슥거나 다니엘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재능교육이 가능한 사람도 있거니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고난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재능이 더 계발되기도 한다.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가인에게는 건축(바나기궤) 기술이 있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사용한 단어이다. 즉, 예술적인 건축물이라는 의미이다.

19절에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남자로 기록되어있다. 아내의 이름까지 나왔는데, 아다와 쉴라다.

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가축 사업을 개척한 사람이다. 드디어 야생사냥이 아닌 가축을 하게 된 것이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악기를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수금과 통소를 만들었다. 즉, 현악기 종류와 관악기 종류를 만들어 연주하였다는 뜻이다.

쉴라는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낳았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을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나아마는 왜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모르나, 유쾌한 노래를 부르는 엔  
터테이너 였을 가능성이 있다.

23-24절에 보면 라멕이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얼마나 포악하고,  
폭군처럼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의 심판까지 모독하였다. 그가 많은 재능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이름은 오늘까지 부끄러운 자로 남아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가 제일 복없는 자이다.

요즘도 그런 자들이 허다하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다.

그들이 세력을 얻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도 아니요,  
하나님도 그들의 세력을 어찌 할 수 없어서 방치하심도 아니요, 그들  
을 한데 모아서 멸망시키기 위함 인줄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그들  
의 재능으로 인한 유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며, 그 죄악에 가  
담하지는 말아야 하리라.

재능 있는 자나, 없는자나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  
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